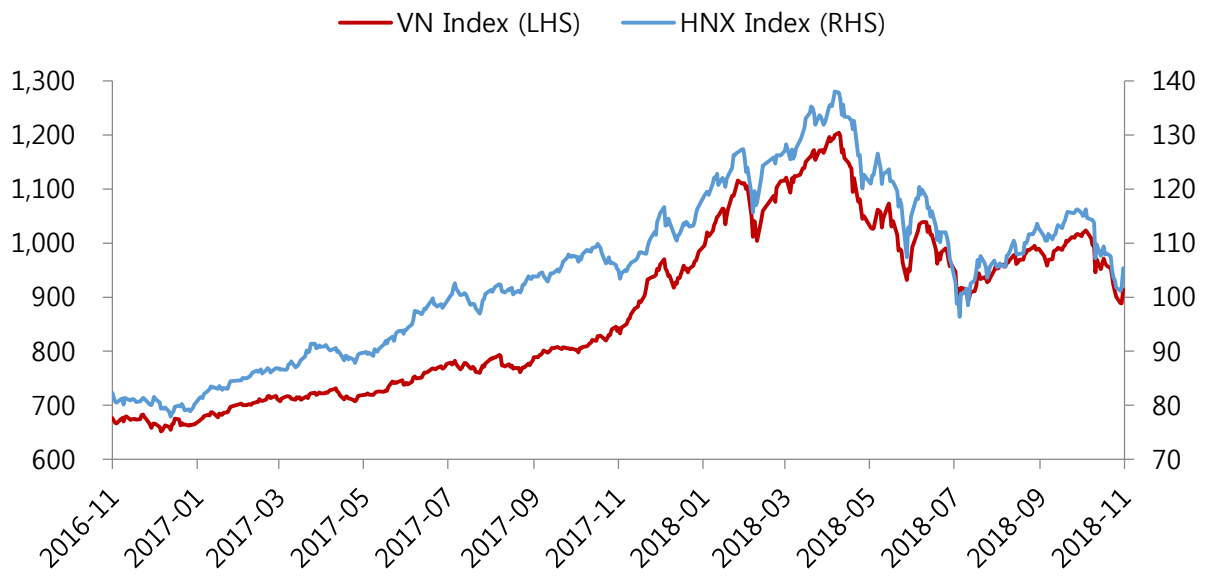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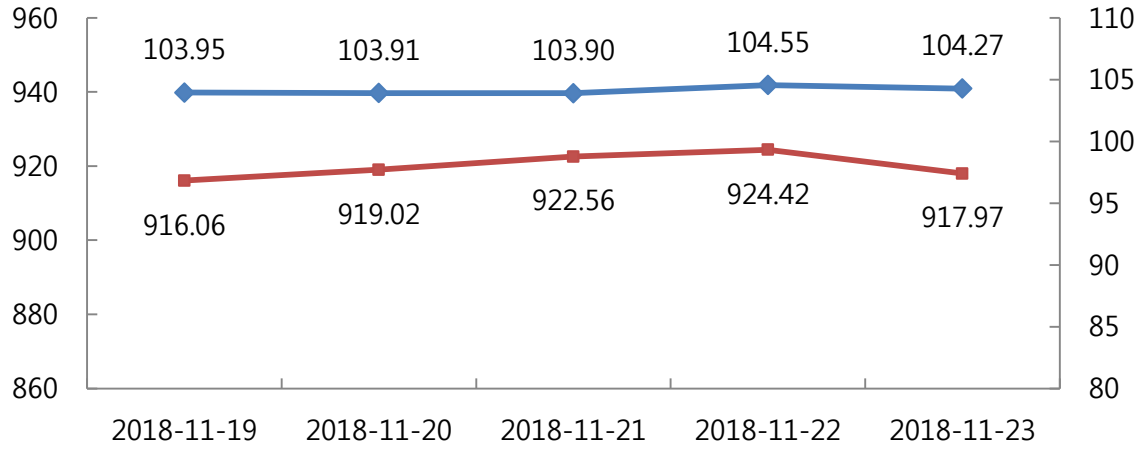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주 베트남 주식시장은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 목요일 924.42 포인트까지 치고 나간 VN 지수는 금요일 917.97 포인트로 마감해 900 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HNX 지수는 1 포인트 내에서 등락을 거듭해 104.27 포인트로 마감했다. 증권, 은행, 에너지, 부동산 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 개별 기업 뉴스

○ Bamboo Airways, 12월 29일 첫 비행

FLC Group의 지원을 받는 Bamboo Airways가 몇 번의 지연 끝에 12월 29일 첫 비행을 시작한다. 첫 운항 루트는 Quy Nhon-하노이, 호치민시-하노이, 호치민시-Quy Nhon으로 예정됐다.

Bamboo Airways Dang Tat Thang CEO는 자사의 첫 항공기가 12월 5일에 배달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교통부는 11월 12일 Bamboo Airways를 운영하는 FLC Group의 자회사 Viet Bamboo Airlines에 항공 면허를 발급했다.

Bamboo Airways는 FLC Group의 리조트와 호텔이 위치한 Quy Nhon, Quang Ninh, Hai Phong, Quang Binh 등의 지역에 직항 국제선을 취항할 예정이며, 베트남의 관광지를 서로 잇는 국내선 노선도 취항할 계획이다.

○ Son Hong Garment, 이번 달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Song Hong Garment의 상장을 승인했다. 증권거래소는 Song Hong Garment가 11월 28일 4760만 주 이상의 주식을 상장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Son Hong Garment는 주 당 45,000 동(1.93)의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2조 1400만 동(9190만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해당 주식은 상장 당일 20% 폭 내에서만 증감이 가능하다. 상장일이 끝날 때까지 54,000동 까지만 상승할 수 있고, 36,000 동 까지만 떨어질 수 있다.

2. 주요 경제 동향

■ 사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들

베트남 상공회의소 Nguyen Quang Vinh 회장이 조사 기업의 42%가 사업 면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는 VCCI가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 중 하나다.

기업 설립 및 전력 접근 부분의 절차가 가장 크게 개선됐으며, 파산, 투자자 보호 및 수출입 절차 분야가 가장 느린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화 된 정부 프로세스가 적어, 13%의 기업들만이 온라인으로 사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화(78%), 전기(74%), 상수(67%), 인터넷(62%), 공단(46%), 교통(41%)등의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기획투자부, 계약자 선정 시 엄격한 규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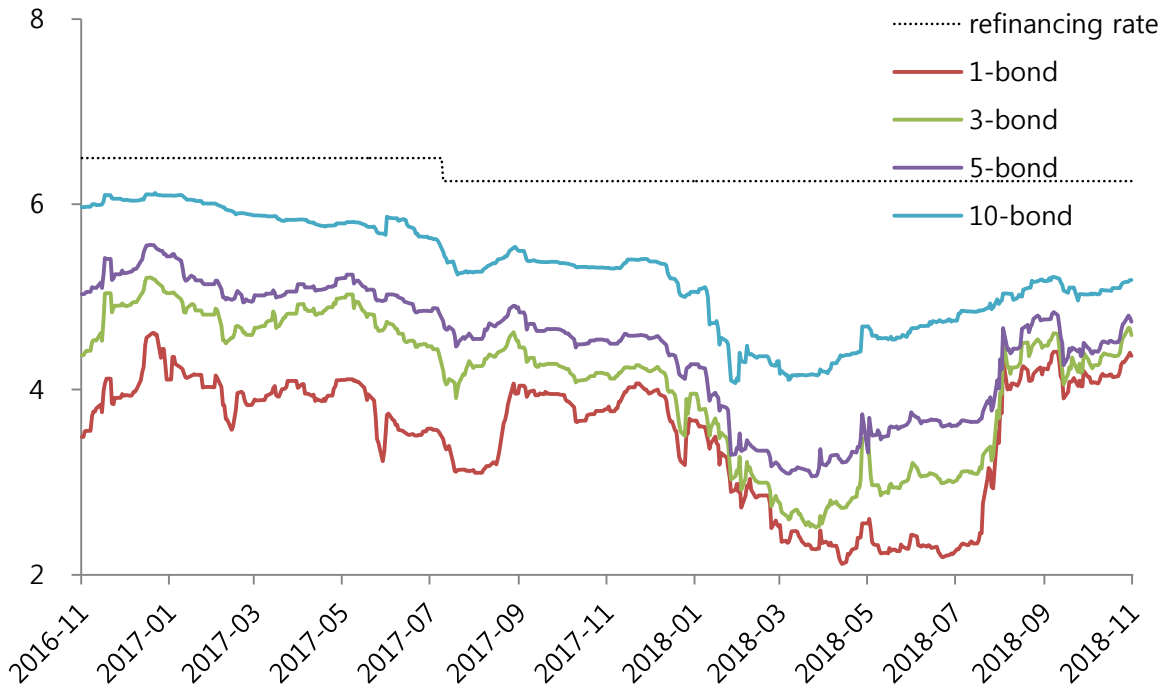
기획투자부는 공공정책상 우려사항으로 중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수행속도가 느림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는 계약자 선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다낭 도심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중국 계약자가 수행한 프로젝트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품질이 좋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투자부는 이 문제를 인정하며, 왜 베트남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는 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많은 프로젝트에서 중국 자본을 들여오고 있고, 두 나라 간 계약 조항으로 중국 기업들을 프로젝트의 계약자로 선정하는 것이 주요하게 고려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인가 총 투자자본이 낮은 수준이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대개 계약을 하지 못한다. 기획투자부는 베트남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자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법률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기획투자부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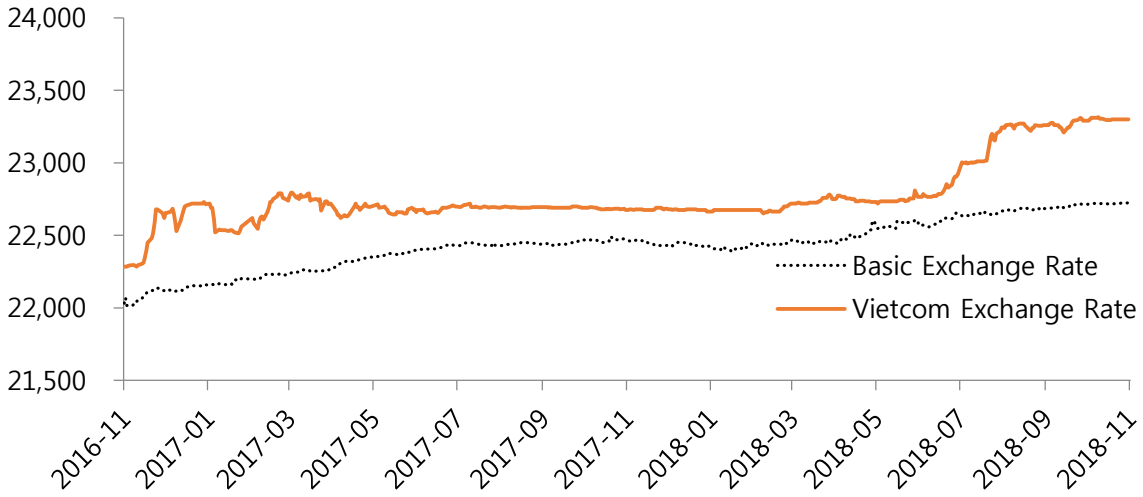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8-11-23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275	23,285	23,375



■ 금리 상승에 기업들의 우려 증폭돼

베트남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대출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 기간에 따라 0.1-0.2% 포인트만큼 금리를 올렸다. 은행의 관계자 중 하나는 11월과 12월 예금 금리 인상은 은행들이 신년 기업들의 차입 증가를 예상해 유동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절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신용 한도 규제를 준수를 목적으로 자본을 유동화 하고 준비금을 재구조화 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예금 금리의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익명의 건설 및 설비 산업 상장기업 CEO는 영업이익의 4-5%가 회사의 이자비용만으로 지출된다고 전했다. 대부분 은행들이 연 6.5~7%의 대출 금리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이 혜택 금리를 받는 기업들은 소수다. 실제 금리는 연간 8-11% 혹은 그 이상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서민 주거용 주택 부족한 베트남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서민 주거용 주택의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 Dang Hung Vo 는 컨퍼런스에서 베트남의 부동산 상품 구조가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Vo 는 고급 아파트 공급은 충분한 반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용 주택의 수요는 전체 시장 수요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급은 20% 이하다. Vo 는 공공 지원 주택과 서민 주거용 주택 개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민간 영역에서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다낭시, 3 억 2 천만 달러 가치의 항구 건설 원해

다낭시 당국이 총 비용 7 조 4 천억 동(3 억 2 천만 달러)을 들여 Lien Chieu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임무를 부여한 상태다.

만약 Lien Chieu 항구가 건설된다면, 이는 Tien Sa 항구와 Son Tra 항구 및 도시 교통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계획에 따르면, 3 조 4 천억 동(1 억 4700 만 달러) 이상이 최대 10 만 톤 급의 화물선과 6,000-8,000 TEU 급의 컨테이너선을 정박할 수 있고

연간 350 만-500 만 톤의 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초기 2 개 부두에 투자된다. 준비 작업은 2019 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0-2022 년에는 프로젝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한국 기업 동향

■ 달러 안 바꾸고… 베트남 직접 송금 길 열렸다

우리은행이 베트남 현지에서 빠르면 6 시간 이내에 베트남 화폐인 동(VND)을 송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 일 밝혔다. 베트남 동을 바로 현지의 우리은행으로 송금해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베트남에 보낸 뒤 다시 베트남 동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송금했다. 거치는 은행이 여럿이라 송금하는 데 보통 2~3 일이 걸리고 중계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부담도 컸다.

새 서비스의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인 해외 송금 수수료와 같고, 베트남 우리은행 계좌로 받으면 중계 수수료가 50% 할인돼 최대 1 만원을 아낄 수 있다.

(More information: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369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잇따른 상장철회', 한다던 CJ CGV 베트남도..."수요예측 부진"

이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정이었던 CJ CGV 베트남홀딩스가 상장 일정을 철회했다. CJ CGV 는 자회사인 CJ CGV 베트남홀딩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일정을 철회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CJ CGV 는 "보통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시행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했다"면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 주관회사의 동의로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CJ CGV 베트남홀딩스는 베트남 현지의 영화 배급과 극장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CJ CGV 의 100% 자회사다. 베트남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2005 년 설립 후 극장 수 57 개, 스크린수 345 개를 구축, 베트남 시장점유율(MS) 41%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공모 희망가(1 만 8900～2 만 3100 원) 상단을 기준으로 1320 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1~2 일 열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상당수 물량이 희망가 하단 이하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침체한 시장 분위기가 주된 원인으로 관측된다.

(More information: http://www.seoulfn.com)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권창중 kwoncj5611@naver.com +84-93-277-498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